

## 지역복지사업에 앞장선 양호교사

서울시내 독섬에서도 약 10리길이나 떨어져 있는 강진너 작은 섬에 자리잡고 있는 신천국민학교의 양호교사 백만기씨를 찾았다.

갑자기 퍼부은 폭설로 눈벌판을 이룬 강변을 따라 10리길을 가노라니 같이 갔던 본협회 윤수부 총무님과 김영숙 서울시지부 상무님이 미끄러져 너머저기를 대어섯번...

그럴 때마다 윤총무님은 “아니 이렇게 년네 있으면서도, 강습회 때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열을 올리니 참 용기도 해”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 × ×

옛날에 궁에서 쓰는 비단을 짜바쳐서 등갈실(東靛室)이란 이름이 붙었었다는 이 작은 섬은 그래도 서울시내 한귀퉁이에 붙어있어서, 성동구 관할내에 있지만 울타리없는 집이며 전기없는 밤이 서울보통시 밖엔 되지 않을 듯하다.

주민이라곤 겨우 2,000명뿐이며 그중 300명의 어린이는 신천국민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신천국민학교에서 7년간이나 양호교사일을 맡아보고 있는 백만기씨는 의사라곤 1명도 없는 이 섬사람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부녀자들의 복지사업에도 손을 벌치고 있어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죽 강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모래가 모여 삼각주를 이룬 이 섬은 수박, 참외, 야채등 발음사트만 생계를 이어가므로 겨울철의 농한기에는 부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착안하여 50명의 부녀자들을 모아 “조화강습회”를 실시했다 (1월 6일~11일)

이 강습회에서 인린 솜씨로 조화 12송이를 만들면 그 수공비가 46원 50전, 이태서 부지런히 하던 하루에 40송이는 만든다고 하니 1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장다칠이던 하늘을 원망하고 가난을 숙원으로 믿어오던 이 섬의 부녀자들이 너도 나드 이 조화 작업에 끼어 들고 있다.

우선 아쉬운대로 학교의 교실을 빌리거나 양호실을 이용하여 강습을 실시하면서 틀나는대로 성경중부까지 곁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중 몇명에게는 식사까지 제공해 가

면서 강습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의에 감동한 부녀자들도 열심히 참석하여 꽃을 만들고 있다.

또 이에 용기를 얻은 백만기씨는 사방으로 주선하여 곧 150명차리의 작업장을 짓게 되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 ×

“양호교사라고 해서 꼭 학교에서 어린이만을 돌보아 주는게 아니예요.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사업에까지 힘써야죠. 이런 면에서 나는 이 섬을 택해온 것이니까요. 얼마나 보람있는 일예요. 전 서울시내에 있는 일류학교와 바꾸래도 절대로 바꾸지 않겠어요. 우리학교 1학년 어린이들은 모두 내가 받은(조산한) 아이들이니 얼마나 대견하대구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외우는 농어촌 보건사업은 바로 이 백만기씨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것 같다. “앞으로 이 섬을 가나만 등산으로 만들테니 두고 보세요”

두지에 찬 이 백만기씨의 다짐에 감명을 보내면서 그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회원중에 이런 좋은 일꾼이 있구나 하는 호뜻함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조화강습을 하는 백만기씨〉